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신 은 주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장 동 립

- I. 서론
- II.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배경
- III. 건축과 미술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 IV.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 V. 결론

## <요 약>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초 문학비평 영역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무용, 연극, 건축, 패션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 미술운동이다. 본질적으로 공간예술에 속하는 건축과 미술 등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와 양상은 시간예술에 속하는 문학과는 달리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변형되어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형적 공간예술의 하나인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과 미술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발생과정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식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복식과 예술의 연관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조형예술로서의 복식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복식의 특성은 첫째,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어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며 둘째,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으며 셋째,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고 넷째,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며 다섯째, 기발한 것들의 나열을 통해 기존의 관념들을 재음미하여 절충하는 방식을 취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복식현상에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자신의 신분과 언어, 그리고 비합리성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시화함으로써 충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사실과 풍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

고 다양한 유행을 만든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의 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시, 공간적 절충주의, 다원주의적 특성 등을 공유하며 시간적 절충주의는 복고성의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 복식의 조형에 있어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된다.

## I.

복식은 건축이나 문학, 음악, 회화, 조각과 같이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술형태이며 창조화된 사회의 요구와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sup>1)</sup>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와 조직화된 대중소비문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1960년대 초 거대한 모더니즘 운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그것을 해체 정리하는 의미로 사용된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와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일고있는 공통적인 변화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위기의식, 복잡한 상황들이 현대복식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보다 새롭고 모험적인 사고방식과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움은 기능성, 효율성, 합리성의 추구 즉, 이성적이기보다는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상적인 것이며 포스트모더니즘 정신과 하이테크 디자인은 시대 사회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시대정신과 메카니즘 기술의 디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발생과정을 알아보고, 복식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미술 운동이 복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복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범위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 1960년대를 기점으로 20세기말까지의 예술운동을 건축과 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컬렉션등을 통하여 발표된 시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II.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문학과 예술을 가리키는 문예적 개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1934년 마드리드에서 출간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시선집」(1882-1932) (Auto logia de lapoesiaespaniola e hispanoameican)에서 페드리코 드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포르테테리니시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60년대 초 문학비평 영역에서 미국의

1) 김윤민, “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의 복식디자인”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산미대학원, 1989). p.24

어빙 호우와 해롤드 레번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up>2)</sup>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문학비평 영역에서부터 무용, 연극, 건축, 패션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라는 접두사는 라틴어로 ‘다음의’, ‘새로운’이란 뜻으로 몇 가지 모순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상투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 아방가르드의 ‘연속적인 혁명’을 의미하며 은연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sup>3)</sup>

제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은 서구세계에 큰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의하여 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히틀러 나치주의의 절대 권력과 유대인 대량학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의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은 전 인류의 멸망에 대한 공포감, 자연 환경 파괴,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기아에 대한 두려움 등의 모든 상황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생성, 발전되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기반성과 함께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더니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순수성의 이름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1960년대의 팝아트, 반문화 그리고 혼합주의에서 19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적 정책과 절충양식을 생성시켰다. 이런 절충주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고급예술, 고상한 취향,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같은 안정된 범주에 대한 개념에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분명 모더니즘을 반복하는 일면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더니즘의 역사주의를 계승하는 절충주의의 형식으로 후기 현대문화의 소산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부정하나 그 부정하는 행위 속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전위적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의도를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새로운 장르와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예술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모더니즘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분명한 상징성으로 비공간적이며 고전에 근거한 장식이 풍자 변화되고 파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적 정신적인면에서는 무정부주의적이라는 것이다.

### III.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일찍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험하는 한 방법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

2) 서성록, 「포스트모던미술과 비평」 (서울:미술공론사, 1989). p.5

3) Charles Jencks, 「Post-Modernism」, 신수현 역 (서울:열화당, 1992). p.11

바 있다.<sup>4)</sup>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은 비단 문학뿐만 아니다. 음악, 미술, 건축, 연극, 영화, 패션,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예술 영역에 걸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다. 사실상 20세기 후반의 예술분야 치고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sup>5)</sup> 포스트모더니즘은 각각의 예술영역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조형적 공간예술의 하나인 복식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건축과 미술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기계 기술 문명의 발달로 전통과 인습의 붕괴속도는 가속화되었으며 민주화, 현대화에 대한 갈등은 포화상태였다. 현대건축은 Ruskin의 예술관과 이에 바탕을 두고 예술의 수공예화를 주장한 Morris의 공예미술 운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새로운 재료 및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sup>6)</sup> 실용예술과 장식예술에서는 기능적인 선과 장식의 단순함이 요구되었으며 과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예술의 민주화, 기능화에 따른 현대디자인 운동으로 아르누보(Art-Nouveau), 쉐세이션(Secession), 콘스트럭티비즘(Constructivism), 퓨리즘(Purism), 데스틸(Destil), 바우하우스(Bauhaus)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조형운동을 바탕으로 192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건축 즉, 건축의 모더니즘은 성숙기에 들어서는데 각 운동들은 독일의 Bauhaus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sup>7)</sup>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잘스젠크스는 건축은 일종의 언어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이 모더니즘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공시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과거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향수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이나 역사성에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건축가는 고전적 어휘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마이클 그레이브즈는 추상과 기계주의를 부정하였으며 그의 건축언어는 고전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그림1, 그림2)

모더니즘 건축이 비역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바로 역사적이고 절충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특징을 지니며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극도의 경제성과 미니멀리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기능적인 면에서 모더니즘 건축보다 한결 덜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림3).<sup>9)</sup> 마이클 그레이브즈의 작품을 보더라도 건물의 중앙에 둥근건축물이 위치함으로써 실용

4) 김옥동, OP. Cit, p.14

5) Ibid, p.35

6) 김희춘, 「현대건축사조의 변천」(서울:건축사, 1981), p.13

7) 정인국, 「근대건축론」(서울:운문당, 1969), p.106-107

8) 김옥동, OP. Cit, p.37

9) Ibid, p.42

적이고 기능적인면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 그림2).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전통적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대중적 건축언어로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탈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혁명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진화적 현상으로서 현대건축의 요소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해석과 통합으로 대중을 위한 전통성을 도입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설계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과거의 형태와 설계과정을 참조하여 소외된 문화현상을 반영하였다. 프랑크게리의 캘리포니아 에어로페이스 박물관(State of California Aerospace Museum, 그림4)은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건축물로 고전성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림 1] 마이클  
그레이브즈

<http://sb.dpc.ac.kr>



[그림 2] 마이클  
그레이브즈

<http://sb.dpc.ac.kr>



[그림 3] “Wexner Center  
무기고 모습”

Peter Eisenman



[그림 4] 프랑크 게리,  
1982

Santa Monica

## 2.

오늘날 미술의 움직임을 가리켜 ‘신표현주의’, ‘신야수’, ‘신구상’, ‘트랜스아방가르디아’, ‘베드 페인팅’ 또는 ‘뉴페인팅’, ‘뉴웨이브’ 등으로 부르며 문화전반의 움직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적 경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하나의 미술적 흐름 내지 움직임을 들어서 그렇게 많은 명칭들이 사용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과거의 「이즘」이나 「운동」의 전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0)</sup>

모더니즘의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미술의 큰 변혁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더니즘 미술운동이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컨셉추얼 아트(Conceptual Art)에 이르러 막다른 골목에 선 듯한 느낌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미술에 있어서의 불순물’이 마구 분출된 채 뜻하지 않던 탈출구의 경계점이 되었던 까닭으로 1980년대에는 마치 이 시대를 특징지을 것처럼 무서운 힘을 지닌 채 새로운 물결을 대두시키며 나타났다.

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집약된 미학적 개념이나 구체적인 조형문제에서 출발한 미술운동이 아니라 다원적 미술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동시대에 걸맞는 미술개념의

10) 윤우학, “포스트모더니즘과 새로운 동향”, 홍익미술(1989. 11)

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순수성, 평면성이 1970년대에 이르러 다원화되어 다원주의로 나타났으며 반 모더니즘 미학에 기여한 신 형상, 장식적 패턴, 페인팅 양식(그림5, 그림6)등의 출현과 더불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sup>11)</sup>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경향에서 두드러진 특징인 과거의 인용이라든가, 차용, 알레고리적 특성, 대중매체의 사용과 접목, 종합주의적 특성 등 다양한 방법론은 모더니즘의 순수성, 논리적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뿐 아니라, 모더니즘을 해체하고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sup>12)</sup>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전시기의 미술이 보여 주었던 형식을 위주로 한 관념적인 미술이나 고상하고 지적인 체 하는 추상미술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무엇보다도 감상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가치를 표현하고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구상적인 재현형식을 취하는데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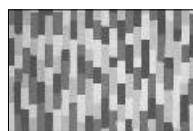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사진이나 영화스틸 또는 소설속의 이야기, 미술사상의 고전주의적인 작품들로부터 모더니스트들의 추상회화에 이르기까지 끌라주, 혼합매체(그림8) 등 갖가지 기법이나 형식 또는 주제를 차용하는데 있어서 서슴치 않은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림7). 줄리앙 슈나벨의 “숲의 제왕”은 나무위에 본드, 접시파편, 오일등을 이용하여 끌라주 기법으로 작품을 전개하였다(그림8).



[그림 5] “Hochbahn  
Skalitzer Strasse”  
Helmut Middendorf,  
1987



[그림 6] “Vagrant”  
David, 1989



[그림 7] 데이비드 살르  
“검증”, 1981



[그림 8] 줄리앙 슈나벨  
“숲의 제왕”  
1984

#### IV.

1980년대 이후 현대패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는 뉴웨이브 패션의 계속된 흐름을 들 수 있다. 뉴웨이브 패션은 1970년 중반 이후 일어난 패션의 「제3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패션운동이다. 이는 사회 참여의식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와 연관되어 나타난 현상

11) 오세권, “1980년대 한국미술의 양상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원, 1990), p.21

12) American Postmodern Art, 호암갤러리. 1993

으로 전통성과 기능위주의 테일러드 복식과 함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전위패션의 요소를 더한 현대적인 룩이다.<sup>13)</sup> 즉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과격적인 디자인을 애호하며 풍부한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패션 룩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펑크(Punk),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네오모더니즘(Neo-Modernism),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특히 두드러진 1980년대의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앤드로지너스로 간주된다. 자웅동체를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성복에 나타난 매니쉬(Manish)현상과 짧은 헤어스타일과 록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장, 메이크업(Make-up)과 자유롭게 남녀의복을 교차시킨 무대복장의 환경에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sup>14)</sup>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다른 예술분야와 유사한 모더니즘적 경향인 물역사성 국제주의적 성격과 역사성, 토속성, 상징성 및 전위성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단순화,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의하여 국제화되었다.

캐롤라인 에반스(Caroline Evans)와 민나소르튼(Minna Thorto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반 패션(Anti Fashion) 및 전위적(Avantgarde)인 형태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고 여성적인 것과 반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민속적인 것의 나열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라 하였다.<sup>15)</sup> 포스트모더니즘적 복식의 특징은 역사적인 복고성과 민속적인 토속성, 상징성 혹은 전위성으로 이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응용되고 있다.

## 1.

포스트모더니즘적 복식은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방향은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주의'로서, 복식에서는 '복고풍'으로서 그 새로운 시도를 표현하였다.

복고풍의 모드는 시대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온갖 종류의 복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낸다. 패션계를 대표하는 오프꾸뛰르 또한 1970년대 말부터 이국적인 모습과 함께 역사적인 테마를 재해석하였는데 특히 1980년도 후반기인 88/89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과거에 대한 매료에 따라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등의 고대복식을 현대양식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를 재해석한 복고풍의 현상은 칼 라거펠트(K. Lagerfeld), 모스키노(F. Moschino), 티에리 뮈글러(T. Mugler), 끌로드 몬타나(C. Montana), 장 폴 고티에(JP. Gaulltier), 로메오 질리(Romeo Gigli)등의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 폴 고티에(JP. Gaulltier)는 1988년 컬렉션에서 15세기 복식(그림9)과 16세기의 스페니시 하우

13) 「패션계 화제 : 소련에서도 드디어 패션지 출현」, 월간 멋(1987. 5)

14) 이정후, “현대여성복식에 나타난 Anti Fashion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1990), p.90

15)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Women & Fashion」 (New York : Quarter Book, 1989), p.59-80

스 코트(Spanish House Coat, 그림10)를 재창조하였으며, 칼 라거펠드(K. Lagerfeld)또한 샤넬(Chanel) 컬렉션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형태를 재해석하였고(그림11), 18세기 후반 복식(그림12)을 재수정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많은 작품에서도 복고성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도입방법은 일부의 장식적인 요소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고풍’의 현상은 모더니즘의 몰 역사성 경향에 대한 반발과 1970년대 말의 빅 룩(Big Look), 거리 패션, 인체를 무시하는 전위적인 일본패션 등에 의한 반 여성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적이고 여성적이며 낭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적인 경향은 과거처럼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적 시각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6)</sup>



[그림 9-1] Piero and  
Antonio Pollauola.  
1470-76.



[그림 9-2] JP.Gaultier  
1988.



[그림 10-1] Spanish  
House Coat. 1529.



[그림 10-2] JP.Gaultier.  
1988.



[그림 11-1] Mary Hill  
1589-90.



[그림 11-2] Karl Lager-  
feld for Chanel.  
1988-89.



[그림 12-1] Fashion  
Plate.  
18세기 후반



[그림 12-2] Karl Lage-  
rfeld. 1985.

16) Jane Mulvagh, op. cit., pp. 342-343.

## 2.

각 문화권마다 민속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패션은 진보와 산업화의 상징으로서 전세계에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더니즘 경향의 단순화,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의하여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복식은 그 전형적인 개념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즉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Ethnic Look)’이 후기 산업시대, 정보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제로서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는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 하겠다.<sup>17)</sup>

이에 따라 문화의 중심부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수민족 내지 미개발 국가들이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의 민속복이나 장식미술 등이 패션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었으며(그림13, 그림14) 민속적인 경향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생태학적인 경향으로 자연, 동물, 식물, 광물 등의 형태를 장식표현의 한 예로 도입하고 있다.

1984년도 유행정보에 나온 패션테마를 참고로 보면 ‘전통과 혁신’, ‘원시와 문명’, ‘아방가르드’, ‘육체와 정신’의 4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기계문명과 원시문화, 물질문명과 신비문화의 접촉에서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 미국과 남 아메리카, 멕시코, 페루 등의 고대문화의 발산지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모티브로 승화시켜 창조되는 미를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식을 보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사고를 갖는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중동, 중국 등의 토속적인 복식이 많이 나타나며 서구적 구성법에 민속적인 색상이나 직물, 무늬를 도입하여(그림15) 토속적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직물의 구성법(그림16) 등에서 지역적 요소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13] Val Piriou  
91-92 A/W CollectionII



[그림 14] J. P. Gautier  
94.1 Mode et Mode



[그림 15] Gaetano  
Navarra, 94 S/S  
Collezioni Bis



[그림 16] Kyoko Higa,  
94 S/S Collezioni Bis

17)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학교학원, 1991), p.42-43

## 3.

상징성이란 목적에 따라 자연, 지역성, 여성적, 남성적인 것 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도전, 고발 등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전위성은 1980년대에 나타난 경향으로서 애매하고 복잡하게 표현되는 형식이다. 기존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내지는 무시에서 기인하는 전위성은 제1차 대전 후 인간 생명의 존귀성 상실에 대해 절망을 느껴 나타나게 될 다다이즘이라는 허무주의로부터 저항적인 경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980년대에 나타나는 패션의 상징성과 전위성은 대중문화적 현상과 현실과 환상을 혼합하는 허구적인 표현으로 초현실주의, 팝 아트, 펑크, 자연주의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표현방법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각도, 즉 역설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상징, 은유, 콜라주 등의 새롭고 전위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을 보면 그 동안 복식의 재료라고 이용되기 어려웠던 금속, 플라스틱, 비닐과 마른풀 등을 의상에 도입시켰으며 씨스루(See-Through)의상과 대담한 커팅기법과 디테일 디자인 등 인체의 에로티시즘을 의상으로 나타내었고 전통적인 복식개념의 혁명으로 속옷이 겉옷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상징적이고 전위적인 패션현상 중의 하나인 초현실주의는 종래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복식은 가장 자유스럽고 창조적인 정신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는 모자를 의자로 디자인하여 초현실주의 기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그림17). 상징적 경향인 팝아트와 펑크 패션은 대중 소비문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데 특징이 있다. 팝아트의 표현법에 있어서 유화, 조각, 콜라주 판화 등 시각예술의 여러 작업들과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재료를 표현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팝아트의 이미지에겐 과감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의상에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18).



[그림 17] Karl Lagerfeld, 1985  
Fashion & Surrealism



[그림 18] W & L. T. 96 S/S  
Uomo Collezioni N. 17



[그림 19] Matsda, 91-92 A/W  
Collezioni II

18)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학원, 1991) p.60-61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있어서 큰 테마중 하나는 에콜로지이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난 패션을 말한다. 이는 패션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기본능이라는 메시지와 에콜로지에 대한 늘어나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그림19). 세기말 생태계보호의 현상으로 나타난 에콜로지 패션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상과 동식물에서 영향을 받은 프린트와 색 배합으로 민속적이고 원시적인 자연회귀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 V.

19세기 중반기를 풍미하던 사조가 리얼리즘이고 20세기 초반기를 풍미하던 사조가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20세기 후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sup>19)</sup> 포스트모더니즘은 1, 2차 대전을 앞 뒤로하여 나타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의도를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예술의 움직임으로 구상계열의 모더니즘과는 대비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더니즘이다.<sup>20)</sup>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파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 정신적인 면에서는 무정부주의적이다. 비록 그것이 문화적 예술적 분리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새로운 예술작품을 생산해 낼 때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예술에 있어서 신념의 결핍을 과장되게 표현할 뿐이다.<sup>21)</sup>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은 예술, 과학, 생활양식 등 서구문화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것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일어난 내면적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서구에만 국한되는 국부적이거나 내면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인 위기의식과 복잡한 상황들이 현대복식의 다양한 조류의 경향으로 표현된다.

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역사주의, 복고주의, 장식주의를 통합하는 역사성과 지역주의, 신토착주의, 맥락주의, 대중주의를 포함하는 토속성, 상징성 및 전위성으로 나눌 수 있다.<sup>22)</sup> 과거를 응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재생시키는 경향인 복고풍 모드는 시대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낸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로부터 바로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과거 예술 작품의 도입은 현대 디자인작품에 재해석됨으로써 널리 응용되고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후기 산업시대와 정보시대에 적합한 디자인의 주제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태에서

19)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서울:청하, 1991), p.13

20) 김 청, 「패션과 포스트모더니즘」(서울:패션과 문화, 1991 여름호), p.53

21) Charles Jencks, OP.Cit, p.21

2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대학원, 1991), p.21

벗어나 동양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수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이나 미개발국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민속복이나 장식 미술 등이 주요 모티프로 활용되었다.

또한, 기존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 및 전위적인 형태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며 여성적인 것, 반여성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의 의미에 가치를 두지않고 무질서하게 나타난다.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이다. 과거의 양식에 현재의 의미를 덧 붙이는 혼합방식인 과거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기법의 하나이다. 옛것을 통하여 새로운 만들어내는 혼성모방은 양식의 다양성을 낳게 되고 여러갈래로 해석되어 다원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합되고 있다.

둘째,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이다. 서구문화의 국제적 지배로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복식형태, 즉 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 혹은 구미지역 전통복식의 재해석을 통해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이나 인간본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셋째, 상징성과 전위성은 대중문화적 현상과 현실, 환상을 혼합하는 허구적인 표현으로 초현실주의적 패션, 핑크 패션, 자연주의 패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표현 방법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각도, 즉 역설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은 상징, 은유, 플라쥬등의 새롭고 전위적인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상이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써 다원주의, 복합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다양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공존하는 상태로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시대적 경계선이 없고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으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벗어난 탈 모더니즘이 아니고서도 병행하며 포용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말의 힘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으로써 창조적 복식 디자인의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21세기 패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접수: 2002년 2월 25일)

## 【                      】

김 청, “포스트모더니즘과 패션” 패션문화(1991, 여름호), p.55.

\_\_\_\_\_, 「패션과 예술」 (서울:금오출판사, 1979), p.16.

\_\_\_\_\_, 「패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패션과 문화, 1991 여름호), p.53.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청하, 1991), p.13.

\_\_\_\_\_, OP. Cit.

김윤민, “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의 복식디자인”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산미 대학원, 1989), p.24.

\_\_\_\_\_, OP. Cit.

루시R, 리파드, (1978), 「팝아트」, 전경희역 (서울:미진사, 1985), p.46.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대학원, 1991), p.21.

복식사전, (문화출판국, 1981), p.678.

서성록, 「포스트모던미술과 비평」 (서울:미술공론사, 1989), p.5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이화여대대학원, 1989), p.18.

이정후, “현대여성복식에 나타난 Anti Fashion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1990), p.90.

임애진, “팝아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1990), p.14.

오세권, “1980년대 한국미술의 양상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1990), p.21

윤우학, “포스트모더니즘과 새로운 동향”, 홍익미술(1989. 11)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982), p.278.

「패션계 화제 : 소련에서도 드디어 패션지 출현」, 월간 멋(1987. 5)

함세진, “현대미술의 포스트모더니즘”, 월간 멋(1992. 1)

Babara Rose, 「American Art Since」 (New York:Apraeger Inc, 1960), p.28.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Women & Fashion」 (New York : Qurtet Book, 1989), pp.59-80.

Charles Jencks, 「Post-Modernism」, 신수현 역 (서울:열화당, 1992), p.11.

Charles Jencks, OP. Cit,

Ibid.

<http://sb.dpc.co.kr>

Jane Mulvagh, op. cit., pp. 342-343.

## A Study in post-modernism articulated in clothing style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 **Eunju Shi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rim Ja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 concept, origin, and property of post-modernism, and made attempts to analyze how the post-modernism in clothing style was articulated. Since post-modernism has been u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alm of literary criticism in the early 1960's, it has stood out across the all social realms, such as dance, play, architecture, fashion, etc, however, modified into different forms and manifestation in each of artistic regions, literature belongs to the Zeikkunst, in essenc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rchitecture and fine art belongs to the Raumkunst, although they belong to the same post-modernism. Therefore, post-modernism in architecture and fine art associated with fashion, one of the formative Raumkunst, was examined in this paper, and the post-modernism trend articulated in fashion was classified as 3 forms of surrealism, pop art and punk, and ecology, to observe the fashion trends.

The property of the post-modern clothing style would, first, be a complicate tendency which worth and worthlessness are changed easily with ignored existing order, and a great variety of meaningful historical, folk, etc- worth appears in disorder. Second, it would not contain any gender discrimination. Third, it would view our body from every angle. Fourth, it would be used as a political tool. Finally, it would resort to an eclectic modus of the existing ideas through an array of novelty.

The post-modern clothing style has its own explicit boundaries of the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In addition, it assumes an aspect of impulsive turmoil by becoming visible the message which tries to convey one's status and language and irrationality, which makes verity and sarcasm difficult to distinguish. Our consistent recognition for forms of clothing has been changed by the facts, and a wide variety of trends has been produced. The post-modern clothing style would share poem, spatial pragmatism, pluralistic property, etc, highlighted within post-modern culture. As a reactionary concept, in particular, temporal eclecticism becomes a stylized prop instrumental in formation of the post-modern clothing style.